신장이식환자에서 나타나는 비뇨기계 합병증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재영, 채현기, 강경원, 김상목, 김호중, 박찬현, 강종명, 박한철

신장이식후에 발생하는 비뇨기계 합병증은 과거에 비해 그빈도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2 - 10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신기능의 손상,소실 사망등도 야기될수 있다 저자들은 신장이식후에 발생한 비뇨기계합병증의 종류 빈도및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한양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로 하여 비뇨기계 합병증의 유무,빈도,종류 수혜자 공여자의 나이및 성별,관계,급성거부반응 유무,면역억제제 종류등을 조사하였다

비뇨기계 합병증은 전체 269례 중 20례로 7.4%에서 나타났으며 종류별로는 급성 요관방광 폐쇄 4례(1.5%), 요 누출 5례(1.9%), 지연성 요관 협착/폐쇄 4례(1.5%), 요도협착 3례(1.1%), 요로결석 3례(1.1%), 이식신주위 농양 1례, 요관방광문합부 출혈 1례등이 있었다.

급성방광요관 폐쇄는 수혜자의 남녀비 1:1 ,평균연령 45세,진단시기는 평균 술후1.5일이었고, 3례가 혈연간 신이식이었다.
요누출은 수혜자 남녀비 4:1, 평균연령 45세,진단시기는 술후 1일에서 2개월로 다양하였다
지연성 요관의 협착/폐쇄는 수혜자 남녀비 3:1, 평균연령 41.3세, 공여자 평균연령 45.3세, 혈연간 1례 비혈연간 3례였다.
뇨도 협착은 전부 남자에서 나타났으며 진단시기는 평균 술후 20일이었다.
수혜자의 성별, 연령,재이식여부,공여자와의 관계,공여자의 나이,면역억제제의 차이등 조사된 인자중 비뇨기계 합병증의 총빈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없었다.